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88호 [루게 제 24966호] 주체 104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리재일 동지, 조용원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연구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총부지면적이 143만 5,000여㎡인 평양남새과학연구소는 모든 공정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조절되는 현대적인 수경온실들과 박막온실들, 첨단생물공학연구설비들을 그뿐히 갖춘 최신식 남새연구 및 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2년 9월 능력확장된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으로 인민들의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결실히 필요한 갖가지 온실남새를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생산성과 영양가가 높은 여러가지 남새품종들에 대한 과학연구사업과 온실남새재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눈썹리 아득하게 펼쳐진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온실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멋있



아니라 보존효과를 높이면서도 푸추와 같은 남새를 재배할수 있게 처리하였는데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연구소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생물공학적 방법으로 맛있고 영양가 높은 다수확품종, 우량품종의 온실남새종자들을 새로 육종해내고 퍼지기 위한 사업, 세계적으로 이룩한 남새품종들을 풍토순화시키기 위한 사업,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온실 남새 재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임으로써 정보당 남새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이는것과 함께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다른 단위들에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잘하자면 해마다 전국의 온실남새부문 일군들을 위한 과학연구 및 경험토론회를 진행하는것을 정상화하며 해당 부문의 편제밑에 온실남새재배와 관련한 지도서들과 각종 도서, 다매체편집물들도 잘 만들어 배포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다고, 온실바다를 보는것만 같다고, 규모가 대단히 클뿐 아니라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자랑할만 한 기지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 오니 2011년 3월 새로 꾸려진 연구소를 찾으시어 현대적인 수경온실들과 박막온실들에서 신선한 남새들이 생산되는것을 보시고 그러도 만족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떠오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꾸려주신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곳곳마다에는 장군님의 체취가 뜨겁게 어

있다고 하시면서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온실남새연구 및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자기들의 일터에 어려웠던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컴퓨터 조종실, 생물공학연구실, 수경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과학연구사업정형과 남새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번에 이곳을 돌아보면서 생물공학적 방법으로 남새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정보당 남새생산량을 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는데 연구소에서 그

동안 많은 일을 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연구소에서 다수확품종의 남새종자를 새로 육종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정보당 300t의 남새를 생산할수 있는 재배방법을 확립함으로써 온실마다에서 도마도, 고추, 오이를 비롯한 풍성한 남새작황을 마련하였다고 하시였다.

온실남새생산의 성과를 좌우하는 안정적인 열보장대책을 위해 지열설비를 새로 설치하였으며 남새재배에서 결실히 필요한 이산화탄소주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도 착실히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박막온실 뒤벽을 보기에

도 좋으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 온실남새재배 방법을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것만큼 그들을 위한

숙소와 강습소도 잘 꾸려놓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과학자들의 생활상문제를 원만히 풀어주어야 그들이 연구사업을 더 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평양남새

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에게 살림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온실마다에서 푸르

싱싱하게 자라고있는 갖가지 남새를 보니 기분이 좋다고, 침체상태에 빠지지 않고 약동하고있는 연구소를 돌아보니 기쁘다고 하시면서 온실남새농사를 잘하여 인민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게 하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실농사를 대대적으로 하라는것은 어제 오날에 와서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하시면서 온실남새생산문제는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품을 들여 온실을 꾸려놓았다고 해도 관리운영을 잘하지 못하면 덕을 보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온실남새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 나가야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갖가지 남새를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유족한 식생활의 향유자로 되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겠으니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배심을 가지고 온실남새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온실남새농사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는 기수가 되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이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비상한 자각과 열의를 안고 온실남새연구와 생산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남새연구 및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인민들에게 사철 더 많은 남새를 안겨줄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업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일관하게 틀어쥐고 드세게 내민 불관리작전

열 두 삼 천 리 별 일 군 들

사흘만 비가 오지 않아도 가물 이 들던 불모의 땅을 황금벌로 가 꾸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일 충정의 마음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앞무중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 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일군들은 이미 마련된 관개체 계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해야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불관리작 전을 짜고들어 물결약형농법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함으로써 비배관리에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외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더욱 빛내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드세게 내밀기 위한 불관리작전이다. 여러 가지 과업들이 제기되고 부족 한것이 많은 오늘의 실정에서 주 관적요망이 사로잡혀 여기저기 령도를 분산하여 일을 벌여놓기 만 하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집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불관리작전과 더 큰 은을 내 도록 관개물길공사를 드세게 내 밀어 관개용수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한 현행 일군 들의 일본새가 바로 그렇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는 데서 군 일군들의 이목을 집중시킨것은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었다. 관개용수가 제대로 보장 되지 못하면 정보당 수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지속된 가 물로 하여 신속지구의 일부 농 장들에서 날이 갈수록 물부족을 느끼고있었다.

일군들은 이 사실을 놓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두가지 문제에 주의 를 돌렸다. 관개수원에서 보내 주는 량에 비하여 물길로 흐르는 물량이 적고 흐름속도도 빠 르지 못하여 말단지역에는 관개 용수가 미처 갈라지지 못하고있었다. 그 원인은 우선 물결연벽이 얇아고 바닥이 높아졌기 때문이 었다. 다른 한가지는 개천-래 성호자연흐름식물길을 따라 대 동강물이 이미 있던 물길로 흘러들면서 물흐름이 방향을 바꾼 것 과도 관계되었다. 평원간선 10여km의 구간만 놓고보아도 100m이상 되는 물결굴이 두 개 있는데 물이 종전과 달리 반 대방향으로 흐르다보니 입구부 다 출구의 바닥이 더 높아지게 됨으로써 흐름이 완만해져 통과 량도 적어졌었다.

현실은 관개체계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는것이 올해 알곡생산 목표수행의 돌파구를 여는 중심고 리로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 문제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기 위 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으로 비 에 새긴 일군들은 물길바닥가시 기나 관개구조물보수를 하는것이 고 아니라 관개물길공사를 통 이 크게 벌일 작정을 하였다. 이때 자연흐름식으로 말단까지

물이 팽팡 흐를 수 있게 하는것을 공사의 요점으로 정하였다. 그리 고 바다를 깊숙이 파면서 경사를 기술적요구대로 짓고 물결폭을 넓히면서도 돌방기와 바닥자갈을 질적으로 하여 물랑비를 없애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었다. 이 작전에 따라 군안의 모든 령력이 총집중되어 짧은 기 간에 큰 10만㎡의 토향처리, 8만여㎡의 돌방기, 20여개소의 구조물보수를 진행하여 연 140여km의 관개물길공사를 결 속하였다. 결과 물통과농력은 2배이상, 관개용수의 유효량도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관개용수 는 혁신적인 방도를 찾고 실 폐를 거둬내려 결장을 뺏 깨자 이 완강하게 내밀었다. 그리하 여 어떤 조건에서도 양수기를 을 정상가동시켜 어느 지역에 나 관개용수를 대출수 있게 하

실 일군들은 전기문제로 해 서 관개용수보장에 지장을 받고 있었다. 전기가 와도 부하가 많 은 경우에는 양수설비의 전동기 를 제대로 가동시킬수 없었다. 그러자 이것을 어쩔수 없는 일 로 여기면서 손매를 놓고 주저 않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때 일군들은 굳어진 도식과 낡고 뒤틀어진 일본새를 버리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 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모든 사 업을 창조적으로 밀고나갈데 대 한 당의 뜻을 깊이 되새겼다.

일군들은 기술자들과 집체적 토의 끝에 전동기를 개조할수 있는 혁신적인 방도를 찾고 실 폐를 거둬내려 결장을 뺏 깨자 이 완강하게 내밀었다. 그리하 여 어떤 조건에서도 양수기를 을 정상가동시켜 어느 지역에 나 관개용수를 대출수 있게 하



논물관리를 신속하게 해나가기 위해 기술적지도를 짜고들고있다. -안변군 천삼형 농업장에서-

평양가금생산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령도밑에 이미 꾸려진 현대적인 축산기지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하겠 습니다.》

평양가금생산국아래 닭공장들에서 상반년도 알생산계획을 넘쳐 수 행하였다. 이러한 성과 는 생산국일군들의 혁신적이며 과학적인 일 본새를 떼어놓고 생각 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일찌기 수도시민들에게 일깨우기 위해 먹이 첨가제를 먹이 시려고 이르는 곳마다 에 현대적인 닭, 오리공 장들을 일떠세워주시었 으며 현저지도를 길을 이 어가시면서 크나큰 심혈 과 로고를 바치셨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갖들 어진 닭, 오리공장들 에서 생산정상화의 동 용이 새겨져 있다. 닭, 오리공장들 하면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가.

생산국일군들은 닭, 오리공장들의 실태를 과 로고를 바치셨다. 이 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일찌기 수도시민들에게 일깨우기 위해 먹이 첨가제를 먹이 시려고 이르는 곳마다 에 현대적인 닭, 오리공 장들을 일떠세워주시었 으며 현저지도를 길을 이 어가시면서 크나큰 심혈 과 로고를 바치셨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갖들 어진 닭, 오리공장들 에서 생산정상화의 동 용이 새겨져 있다. 닭, 오리공장들 하면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가.

생산국일군들은 닭, 오리공장들의 실태를 과 로고를 바치셨다. 이 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일찌기 수도시민들에게 일깨우기 위해 먹이 첨가제를 먹이 시려고 이르는 곳마다 에 현대적인 닭, 오리공 장들을 일떠세워주시었 으며 현저지도를 길을 이 어가시면서 크나큰 심혈 과 로고를 바치셨다.

산능력은 다른 닭공장들보다 2배이상이기때문이었다. 이런 단위가 앞장에서 내달려야 그걸 을 불씨로 하여 다른 단위들에 서도 생산적양양을 일으킬수 있 었다.

만경대닭공장을 전향단위로 꾸리기 위한 단계별목표가 세워 지고 그에 따르는 일군들의 노 단조직이 세부화되었다. 공장에 사상요양점들을 최상의 수준 에서 꾸리는 사업과 함께 새 세 기 산업혁명의 불길놀이 현대 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 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결린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 다. 특히 통합생산관리체계를 세 우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해 결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었다. 그러나 일군들은 물러서 지 않았다. 바로 그 길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길이기에 일군들은 스 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발이 닳도록 뛰고 뛰었다.

당정책관철을 자기 사업의 주 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아배단 위지도를 받들었기때문에 일군 들의 민첩성은 작전과 지휘는 응 당한 결실을 가져왔다. 짧은 기 간에 닭사양관리와 알생산을 실시감시조종할수 있는 통합 생산관리체계가 확립되었으며 년간 수천의 닭을 일군들은 스 로 생산하여 축산물생산을 늘릴 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 게 되었다.

모든 단위들에서 만경대닭공 장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기 위 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일군들은 사무실적사업방법 과 소방대식일군제를 비롯하여 낡은 일본새를 털어버리고 자 주 아배에 내려가 걸린 문제들 을 제때에 포착하고 해결해나 갔다.

서로, 하당닭공장, 두단오리

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종합축 산시설과 토착미생물에 의한 진흙 먹이생산기지, 복합미생물발효 계 및 단배균생물생산기지 등이 훌륭히 꾸려졌다. 그 은은 1.2 배로 뛰여오른 알생산실적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 거하여 먹이첨가제를 국산화한 것도 본받을 만한 원리이다.

지난 시기에는 원료를 수입 하여 먹이첨가제를 생산하였다. 그러다보니 고기와 알생산 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었다. 일군들은 자체의 원료에 의거한 먹이첨가제생산방법을 연구완성하여 축산기생물에 필요 한 먹이첨가제를 생산보장 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이 사업에 한사랄같이 달려붙 었다.

이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 았다. 하지만 그들은 해당 부 문 과학자, 연구사들의 방조밑에 효능높은 먹이첨가제를 만들어 내는데 나서는 기술적문제들 을 하나하나 파악해나갔다. 이 와 함께 생산에 필요한 발동발 전기와 분쇄기 등을 자체로 해 결하기 위해 생수기를 해체나갔 다. 기어이 먹이첨가제를 국산 화하기 위한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하여 우리 식의 먹이 첨가제가 생산되었다. 지금 여 기서 생산되는 먹이첨가제는 생 산국이며 닭, 오리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그 효령이 대만 하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아배 단위들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 키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 를 다그치기 위한 지도사업을 혁신적으로 파악적으로 해나 가 는 것은 이것 일군들의 일본새는 긍정할만 하다.

본사기자 주 창 일

과일향기는 이렇게 짙어간다

북 청 군 에 서

7월의 북청땅에 과일향기 짙 어간다. 하지만 북청땅의 과일 향기는 무엇으로 짙어가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천만면세일이 흘 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 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이 라오도록 높이 모시며 수령님 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 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 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지난봄 과일나무들이 병해충 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과업이 제기되었을 때였다.

일부 일군들은 농약은 자체로 만들거 어려우므로 우에서 대주 기 전에는 힘들다고 하였다. 하 지만 관공일군들은 주제 50 (1961)년 4월 혁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주제적 인 과업실현의 최후한 설계도 를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시자면 이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무엇인가 생각 을 더하던 군과수농장경영위원 회의 한 기술일군이 최근 과학 연구부문에선 천연나노분산제 를 가지고 농약을 만들어 성공 하였는데 우리도 그 기술을 받 아들이자고 하였다.

모두가 그의 말을 지지하 였다.

그때부터 경영위원회 기술일 군들은 해당 부문의 긴밀한 령도밑에 천연나노분산제를 리 용하여 새로운 농약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달려붙었다.

그러나 성공할수 있다는 담보 는 없었다. 아직은 천연나노분 산제에 대한 상식이 없고 그것 을 리용하여 농약을 만들어본 경험도 없었기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버이수령님 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시 기 위해 통천과수농장을 찾았으 신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받들고 새로 조성한 천 수백정보의 과수원이 은을 내게

하지만 병해충피해를 막는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고심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날과 달이 흐르는 속에 드디어 그들은 천연나노분산제 에 매우 적은 량의 살충제, 식물 성농약 등을 일정한 비율로 섞 어 그것을 물에 풀어 분무하면 병해충구제효과가 높다는 실리 를 쥐게 되었다.

여기서 신심을 가진 경영위원 회기술일군이 병해충구제효과 를 불분이나 과일나무의 생육 에도 좋은 농약을 만들어내자고 하였다.

그 후 보다 높은 목표를 세기 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기예와 힘을 합쳐가면서 시험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식료공업 에 쓰이는 원료를 첨가해도 리 용하면 농약의 효과가 더 높아 진다는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 었다. 그들은 이 성과에 기초하 여 농약생산기지를 꾸리었다. 그리고 모든 농장들에서 이 농

약을 병해충구제에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였다. 이때 그들 이 잘한것은 병해충에잘보게 계를 철저히 세우고 진디물의 발생위험이 생기면 즉시 분무 하도록 한것이었다.

몸을 들여 노력한 보람은 컸 다. 우선 이 농약은 천연나노분 산제만 있으면 쉽게 생산할수 는데, 또한 이 농약을 분무하 니 여러가지 진디물피해가 없 어진것은 물론 과일속벌레도 구제 되었다. 그리고 과일나무의 생 육이 더 좋아졌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파 로고로 바치기 위해 일군들속 에 불같은 정열, 바로 여기에 성공 의 비결이 있었다.

하기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파수의 고향에 걸어가서 과일 향 기는 한형성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 하는것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꽃피우려는 일군들과 기술자본의 숭고한 량심의 결정 체라고 말한다.

본사기자 김 강 길

과학적인 타산과 실천으로

정주시 일해협농장에서

정주시 일해협 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품소 창조하시여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인 주체 농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 쟁을 힘있게 벌려 정보당 수확 고를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 를 마련해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사에서 질소비료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없애고 린, 가린, 구소비료와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를 구워서 맞게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어 품소 마련해주 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당장건 일꾼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일군들속 에서 론의된 기본분제가 있었 다. 그것은 논벼초기생육을 보 장하기 위한 린인비료화보를 농 장작업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겠 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토의하게 되는데 사연 이 있었다.

일군들이 올해 과학농사작전 을 세우기 위해 기술일군들과

함께 포진별토양분석을 전면적 으로 진행했을 때였다.

결과 농장의 적지 않은 포 진들에 절대적으로 린성분이 부족하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자책이 컸다. 논벼생육초기에 린성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 하면 생육후반기에 지장을 못 아 알한 결실을 맺을수 없게 된다.

그러나 지난 여러해동안 이 사업에 낮은 절기 둘러다보니 오늘날 같이 토양속에 린성분이 매우 부족하게 되었었다.

일군들은 논벼의 초기생육에 필요한 린성분을 과학적으로 보장해주는데 올해 알곡생산목 표를 점령한다는것은 중요한 비 결이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문제를 풀자면 수심의 린인 비료를 확보하여야 하겠으나 농장의 형편과 당면한 영농사 업으로 하여 일군들은 망설이 지 않을수 없었다.

관리위원회장 로운남동무의 생 각은 깊어졌다. 어려운 때 농장

의 농사를 책임진 일군의 결심 채택이 중요하다.

그는 신심에 넘쳐 일군들을 바라보며 알곡증산성과 안고 10월의 대추전장에 몇몇이 들 어서자면 이 문제를 자체의 힘 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루를 박았다.

《당의 요구대로 우리 일군 들이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 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파 뛰면 못해될 일이 없습니다. 올 해 농사의 운명이 우리의 어깨 위에 지워졌다는것을 명심하 고 우리모두 완강한 공격정신 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 갑시다.》

일군들은 새로운 각오를 되 고 분발해나갔다. 이렇게 되어 일군들은 린인비료를 확보하는 것을 올해농사작전의 중요항목 으로 새롭게 제기하고 그 실천 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펼쳐 나갔다.

우선 이 비료확보를 위한 사 업에 모든 일군들이 어깨를 들

어넣었다. 팔장을 뺏 깨지 뛰려는 일군들의 이악한 노력은 응당한 결 실을 맺게 되었 다.

해당 부문의 긴밀한 령도 밑에 수심의 린인비료를 확보 하였었다.

일군들은 이 비료를 과학적으 로 리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우선 영 양단지모를 조각하는데 받아들 이는 조건에서 비모분종합양 제를 린인비료와 잘 섞어 포만 제로 리용하도록 하였다. 그 리고 이룬모를 받아들이는 포진 들에서는 린인비료를 뿌리고 썬 레지기를 한 다음 모내기를 하 도록 하였다.

이렇게 일군들은 농작의 모든 포진들에서 논벼초기생육을 과 학적으로 보장하여 올해 알곡생 산량을 늘일수 있는 큰 예비를 마련해나갔다.

수령의 유훈관철에서 과학 적인 타산과 실천을 중심고리로 하여 일군들의 일본새는 높은 알곡증산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김 강 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발전설비생산 빠른 속도로 추진

대 안 중 기 계 련 합 기 업 소 에 서

은 나라 전체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에 자랑찬 로력적 선물을 안고 들 어설 중헌한 기 세로 총공격속도를 높여가고있 는 속에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에 보내줄 발전 설비생산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 룬해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청천강 전역에 보내줄 발전기와 타빈, 각종 변압기를 비롯한 발전설비 생산은 전부 결속한 령합기업소 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은 지난 6월 중순에 백두산 선군청년2호발전소의 2호기 타빈안배장치조립을 끝내어 보 내준데 이어 7월에 들어와 2대의 변압기와 타빈 1대를 비 롯한 설비와 부품들을 완성하여 실어보내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 었다.

1호기와 2호기의 발전기고 장치조립이 이미 끝나고 상, 하 부등계조립이 마감단계에 이르 려지며 발전기속조립은 95% 를 이룬데, 부철 및 자구조립은 80%계선에서 힘있게 추진되 어 백두산선군청년2호발전소 발전설비생산은 7월 중순까지 전 부 결속할수 있는 확고한 전 망이 열리고있다.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단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이룩된 이러 한 성과가 지금까지 발전설비생 산에서 있어보지 못한 최고기록 으로서 당의 전투적속도를 받아

안고 당장건 일꾼들까지 발전소 건설을 완공하기 위해 결사의 투쟁을 벌리겠다는 백두정훈들 과 군인건설자들을 크게 고무해 주고 은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는 기 세 소식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 으로 총공격을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 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 러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 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고 발전소건설을 당장 전 일꾼들까지 끝내는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신 소식은 령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 급에게 새로운 비약의 불길을 지펴주었다.

뜻깊은 10월에 백악전역에 서 전력생산의 동음이 울리는가 못 울리는가가 전적으로 자신들 에게 달려있다는 비상한 자각과 책임감을 안은 대안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결사의 투쟁에 떨쳐 나갔다.

이 들은 종전같으면 다섯달은 실히 걸릴 발전설비생산을 단 두달안에 결속할 대담하고 통

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전투조 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 면서 완강한 공격전을 벌이고 있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책임 일군들이 기술자, 기능공들속 에 들어가 발전설비생산기일 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방안 들을 적극 찾아내고 예비를 램 두동원하면서 종전같은 상 상도 못할 대담한 일정목표를 내세우고 혁명적으로 실천해 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내각과 해당 부문의 긴밀한 령도밑에 생산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추경공과 주물공생산을 단 일률동안에 결속하였으 며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부철소재를 예비를 동 원하여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냄으로써 가공중기가 제일 긴 부철가공과 조립기일을 월 선 단축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 어놓았다.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일군 들이 발전설비들의 가공과 조 립공정에 따라 직장과 작업 반, 기대별로 담당하여 현장에 서 전투를 지휘하고 은 대안당 의 청년동맹원들까지 떨쳐나 서 발전설비생산에 힘있게 도 무추동하는 속에 날마다, 시간 마다 새로운 기록이 창조되고

있다.

발전설비1가공작업의 일군 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합리 적인 가공방법을 적극 받아들 이고 기대마다에 만가동, 만부 하를 보장하여 발전기속가공 기일을 종전에 비해 1주일이상 앞당겼으며 설계연구소의 기술력량과 3대혁명소조원들 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부철가 공에 새 기술을 받아들여 가공 기일을 며칠이나 줄일수 있게 하였다.

발전설비조립작업의 로동 자, 기술자들도 기존관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고정자철심파 기작업에 레이저정단기를 적극 리용함으로써 종전같은 두달 이상 걸려야 할 작업량을 단 한 달동안에 해제끼는 혁신을 창 조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발전설비생 산 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대상설 비종합작업에서도 세차게 일어 났다.

종합작업의 일군들은 타빈과 일구부내공정들을 동시에 밀 고나가는데 맞게 공정순차에 맞물려 기대별작업조직을 치 밀하게 짜고들고 설비들의 만 가동을 보장하여 7월초에 들 어서 시작되던 설비부품들 가공을 전부 결속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에서 정해진 날자에 백두 대지에서 발전기의 동음이 울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바로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 비상한 책임감을 안은 이들 은 품이 많이 드는 작업날계 연마작업을 다그치기 위한 돌격대를 못고 결사전을 벌려 한달만 작업과제를 단 1주일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발전설비조립작업의 로동 자, 기술자들도 기존관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고정자철심파 기작업에 레이저정단기를 적극 리용함으로써 종전같은 두달 이상 걸려야 할 작업량을 단 한 달동안에 해제끼는 혁신을 창 조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발전설비생 산 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대상설 비종합작업에서도 세차게 일어 났다.

종합작업의 일군들은 타빈과 일구부내공정들을 동시에 밀 고나가는데 맞게 공정순차에 맞물려 기대별작업조직을 치 밀하게 짜고들고 설비들의 만 가동을 보장하여 7월초에 들 어서 시작되던 설비부품들 가공을 전부 결속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안전기공장의 일군들과 로 동계급도 10월의 대추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몇몇 이 들어설 일념을 안고 변압기 와 전압 및 전류변성기를 비롯 한 설비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7월에 들어서면서 2대의 변압 기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 설장에 실어보내는 혁신을 창조 하기 위해 불꽃튀는 전투를 벌 리고있다.

변전선장장, 제판장장, 변압

기작업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수백대에 달하는 청천강계단식 발전소 설비생산에서 발휘한 투 쟁기풍으로 있는 예비와 가능성 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고 사회 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을 더욱 세 차게 지펴올리면서 남은 설비들 을 무조건 제기일내에 생산보장 하기 위해 불꽃튀는 전투를 벌 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본 조건의 실천 이고 현실이라 는 것을 다시한 번 은 세상에 시위할 철의 신 념과 배양을 안 고 대안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발전설 비생산을 전부 결속한 그 기세 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설비 생산을 승리적으로 끝낼수 있 는 돌파구를 열어제길 그 열정 과 기백으로 결승주로를 따라 분초를 다투며 즐기차게 내달 리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 진 수 사진 본사기자 전 성 남



불멸의 친필과 더불어 빛나는 위대한 애국의 한평생

끝없는 그리움속에,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7월의 날과 날들이 흘러가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고귀한 한생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는 거대한 마음은 지금 판문점에 세워진 역사의 친필비에 또다시 울려 퍼지고있다.

《 김 일 성 》

1994.7.7.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기신 아홉 글자의 친필!

보면 볼수록,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 수령님께서 바치오신 애국애족의 한생과 필생의 열정이 비껴있는 불멸의 글발이어서 숨쉬는 심정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으며 민족의 숙망을 실현하는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였다. 》

연일 계속 남조선의 통일문제연구소의 한 성원은 《 김일성주석님의 친필에는 수천수만자에도 다 적을수 없는 위대한 력사,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쏟아진 절세의 애국자의 빛나는 업적이 깃들여있다. 》

하기에 우리 민족 누구나 통일 친필비를 보면서 주석님을 드르길

경모하며 7월의 하늘가에 경모의 열풍을 몰아오는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걱정을 터지였다.

정녕 민족의 위대한 태양의 모습은 7월의 거룩한 친필과 더불어 겨레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 한없는 그리움의 정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아버이수령님께 있어서 조국통일은 필생의 위업이었고 가장 절절한 념원이였다.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도 수령님께서는 통일을 떠나 사신적이 없으시였다.

자신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불면 불휴의 사색과 정력적인 령도로 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아버지수령님, 그 헌신의 나날속에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통일방안들과 친히 보아주시고 비준하여주신 통일문제를 그 얼마나 고귀하고 통일된 필



남조선의 애국자 그리고 동포통일운동의 위대한 애국자 김일성 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남기신 아홉 글자의 친필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으며 민족의 숙망을 실현하는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였다.

후속 없이 견고결집을 우리 수령님이 되셨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자신을 초월처럼 장거리 불태우셨다.

오늘도 우리 겨레는 주제 83 (1994)년의 잊지 못할 나날을 눈물속에 돌이켜본다.

바로 그해의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라고, 우리는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을 풀어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일의 절정적극운을 열기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민족분열사에 처음으로 되는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마련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회담의 성과를 위하여 참으로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였다. 그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일꾼들이 잠시만이라도 짐부실에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의 통일을 위해 쉬힐수 없을시다가 순직하신 위대한 인장, 절세의 애국자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들에게 같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세워 통일의 상징으로 빛을 뿌리

도록 해주시었고 그이께서 내오신 조국통일 3대헌칙과 전진방위군장령방안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였다.

그러면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석의 신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통일외지로 불타오르고있다.

오늘도 겨레의 심장속에는 전쟁의 불꽃을 마구 휘두르는 호전파들의 망동을 비집쟁이들의 허위성세로 막아 예기치 않았으며 여우작적하게 판문점을 시험하여서 조국통일에 대한 철석의 의지를 천명하시던 경애하는 려수님의 모습이 뜨겁게 새겨져 있다. 정녕 그이의 모습은 불타는 애국의 의지로 조국통일위업을 개척하고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 그대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길 불면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선군형도의 길을 출기차게 이어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천출유인인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였기에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만한다는것을 굳게 믿고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비범한 령도가 있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한생의 로고와 깃들여있는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되야만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향 III

위대한 래양으로 영생하시는 전설적위인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 조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재일본조선청년학생대표단 단장인 배준열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담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 21년이 다가올수록 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인류력사는 수많은 위인들이 기록되고있지만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사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한생을 영겁토록 바친 위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 탄생하신 대원수님께서는 일제 식민지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담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 21년이 다가올수록 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인류력사는 수많은 위인들이 기록되고있지만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사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한생을 영겁토록 바친 위인을 알지 못하고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명도력을 지닌 김일성대원수님은 뜨거운 인품의 길에 나서시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우리 조국이 자주, 자립, 자위대 빛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될수 있는것도 우리 인민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긍지 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는것도 위대한 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메여주신 생각할수 없다.

나라의 통일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대원수님의 성스러운 헌신의 자욱은 조국방어 어머니에 어려여있다.

주체의 해외교포조직으로 자랑찬 로정을 걸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1년에 즈음하여 세계적범위에서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들이 조직되어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들을 통하여 그이를 추모하는 진보진영의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진정 김일성대원수님은 거룩한 한평생을 민국의 대업적으로 가득 채우시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뿌리는 위대한 래양으로 영생하시고는 전설적위인이시다.

애국 위업의 환경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총련은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조청) 결성 60주, 재일본조선청년학생동맹 (청학동맹) 결성 20주, 재일본조선학생동맹 (청학동맹) 결성 70주 되는 올해를 새 세대를 축복하고 정내세대를 새 세대의 해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조직들에서는 광범한 동포청년들을 묶어세우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

그 투쟁의 일단을 전한다.

한편 학생회화동, 강습 등 여러 가지 교양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동포청년들을 조청조직에 인입시키고있다.

또한 총련의 1세, 2세들을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이고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체육사업들을 진행해오면서 청년들의 단합과 화목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점으로 되게 하였다.

이들뿐아니라 일본각지의 조청조직에서도 조국과 총련의 력사에서 뜻깊은 계기로 많은 율해를 애국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기를 위한 투쟁에 조청원들을 한사관같이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들뿐아니라 일본각지의 조청조직에서도 조국과 총련의 력사에서 뜻깊은 계기로 많은 율해를 애국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기를 위한 투쟁에 조청원들을 한사관같이 불러일으키고있다.

동포로 짐부실에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의 통일을 위해 쉬힐수 없을시다가 순직하신 위대한 인장, 절세의 애국자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들에게 같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세워 통일의 상징으로 빛을 뿌리

들을 애국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시는것이 동포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지각한 성정동향과 그곳의 청상회일꾼들은 자신들의 사업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그들이 조선사회주의의 궁극적정당성을 확고히 하고 애국애족에 적극 참가하도록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특히 일본학도에 다니는 동포 학생들을 모두 학생회조직에 망라시키기 위한 사업과 졸업후 그들을 위한 대우를 받아들이도록 애국운동의 주역으로 내세우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이고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체육사업들을 진행해오면서 청년들의 단합과 화목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점으로 되게 하였다.

이들뿐아니라 일본각지의 조청조직에서도 조국과 총련의 력사에서 뜻깊은 계기로 많은 율해를 애국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기를 위한 투쟁에 조청원들을 한사관같이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들뿐아니라 일본각지의 조청조직에서도 조국과 총련의 력사에서 뜻깊은 계기로 많은 율해를 애국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기를 위한 투쟁에 조청원들을 한사관같이 불러일으키고있다.

영원불멸할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업적

국제사회계가 경건히 회고

민족분열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을 국제사회가 열렬히 추종하고있다.

네팔신문 《아트렌》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민족의 래양, 통일의 구성으로 영생하셨다. 그이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생을 불태우시였으며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조선통일을 위한 국제적협박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을뿐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위업을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주석께서는 수많은 조국통일 제안들을 내놓으시였으며 그 과정에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또한 자신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과 해외의 수많은 동포들을 절친하시였다.

기네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친필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헌칙은 1972년 북과 남이 발표한 7.4공동성명에 명기되어 전체 조선민중은 물론 광범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속에 조선통일의 대강으로 되었다.

또한 1980년 10월에 제시하신 고령민주변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조선의 면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조선통일의 설계도이다.

캄보디아국가지도자 오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신께서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통일의 근본초석을 마련해 주시였다.

나이제라 김일성-김정일주의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반도의 중부에 위치한 개성시의 판문점에 김일성주석의 친필이 새겨진 조국통일친필비가 있다. 이 친필비는 통일의 밝은 앞날에 대한 심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으며 전체 조선민중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

최근 남조선에서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새창개 벌어지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범죄적행태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치솟으면서 반미 투쟁도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코리아 연대)는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군은 탄핵을 가치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라는 주제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13년전 미군이 장갑차로 호순이와 미선을 깔아뭉개고 미선을 찢어놓은 침략행위를 심판할 때까지, 온갖 추악한 미군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미국이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복수세력군을 철수시킬 때까지 정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군정 70년동안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은 강요당한 우리 민족의 원한과 분노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코리아연대의 념정서 2명은 《살인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나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미제침략군을 저주하라는 배라들을 미국대사관주

각계 단체들 반미투쟁 전개

변에 뿌리였다. 그들이 대사관을 향해 돌진하자 바빠맞은 경찰은 그들을 저지시키고 체포하여 새창개 벌어지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범죄적행태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치솟으면서 반미 투쟁도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코리아 연대)는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군은 탄핵을 가치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라는 주제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13년전 미군이 장갑차로 호순이와 미선을 깔아뭉개고 미선을 찢어놓은 침략행위를 심판할 때까지, 온갖 추악한 미군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미국이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복수세력군을 철수시킬 때까지 정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군정 70년동안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은 강요당한 우리 민족의 원한과 분노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코리아연대의 념정서 2명은 《살인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나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미제침략군을 저주하라는 배라들을 미국대사관주

남조선노동자 3만 5 000여명 서울에서

반 < 정부 > 투쟁 전개

직화대와 일반회고를 기어이 강행하겠다는것이라고 개박했다.

《정부》는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노동시장이막막 행진함을 전하며 기어이 하고있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22일 노동시장이막막 행진을 위한 제2부분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벌리고 전지역의

도발자들은 쓰디쓴 참패를 각오하라

피괴들은 6월 25일부터 조선시대의 안전도주변해상에서 합동상륙훈련이라는것을 요란스럽게 벌려놓고 화야를 질개 풍기였다. 수천명의 병력과 대형수함, 이지스구축함, 잠수함, 상륙함을 비롯한 수십척의 함선들이 그 해, 해, 공군에 소속된 비행기 45대 등 방대한 침략무력이 동원된 속에 감행된 이 불법상륙훈련은 7월 5일까지 평판적으로 벌어졌다. 한편 피괴들은 조선동해상에서도 함대총합전투 훈련이라는것을 강행하였다. 조선전쟁은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된 연습의 테두리 안에서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잠수함, 고속정 등 21척의 함정과 잠수함, 무인정찰기 등 각종 비행기들을 투입하여 침략대응훈련, 함대총합전투훈련, 대잠수함훈련 등에 열을 올리며 살벌한 전쟁기운을 고취하였다.

《미시간》호의 남조선인화과 해군사령관들은 피괴들의 도발자들에 대한 참패를 각오하라

각 지부에서 일제히 집회들을 가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박근혜를 처단하라!》, 《노동시장이막막 행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투쟁을 벌였다.

한편 공공부문, 금융산업 공동투쟁본부소속 노동자 1만 5 000여명도 피괴정부의 노동시장이막막과 공공부문 민영

회화지를 요구하여 대학로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참가자들은 《가자! 총파업 박근혜를 처단하라!》, 《노동시장이막막 행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투쟁을 벌였다.

한편 공공부문, 금융산업 공동투쟁본부소속 노동자 1만 5 000여명도 피괴정부의 노동시장이막막과 공공부문 민영

각 지부에서 일제히 집회들을 가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박근혜를 처단하라!》, 《노동시장이막막 행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투쟁을 벌였다.

한편 공공부문, 금융산업 공동투쟁본부소속 노동자 1만 5 000여명도 피괴정부의 노동시장이막막과 공공부문 민영